
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 <h2>1.28(목) 조간부터 보도 가능</h2>	
---	--	--

작성 부서	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, 신용정보팀, 은행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, 상호저축은행감독국 서울보증보험 상품개발부			
책임자	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신진창 과장(2156-9850)	담당자	고상범 서기관(2156-9861) 홍상준 사무관(2156-9856)	
	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 남동우 과장(2156-9604)		최상아 사무관(2156-9670)	
	금융위원회 은행과 이윤수 과장(2156-9810)		송현지 사무관(2156-9813)	
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류찬우 국장(3145-8021)		박상원 건전경영팀장(3145-8045)	
	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장병용 국장(3145-6770)		이길성 저축은행총괄팀장(3145-6772) 김민수 건전경영팀장(3145-6772)	
	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조성목 선임국장(3145-8150)		장 환 소비자보호제도연구팀장(3145-5702)	
	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 조성래 국장(3145-5700)		서 정보 소비자보호제도연구팀장(3145-5702)	
	서울보증보험 상품운용본부 이용권 본부장(3671-7772)		최성환 상품개발부장(3671-7350) 송명용 팀장(3671-7388)	
배 포 일	2016. 1. 27. (수)	배포 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공 보 실(3145-5789~92)	총 5매

제 목 :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

- “10%대 중금리 신용대출을 다양하게 공급하겠습니다.” -

◆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의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겠습니다.

-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통해 중금리 대출 공급 기반 확대
- 1조원 규모의 보증보험 연계 은행·저축은행 중금리 상품 출시
- ‘은행·저축은행’ 연계영업 활성화

◆ 신용정보 집중·공유 확대 등 신용평가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.

◆ 인센티브 부여, 중금리 비교공시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겠습니다.

I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 현황

□ (현황) 중간 수준의 신용도와 리스크를 가진 금융 수요자가 있음에도, 중금리대 신용공급은 미흡

① (금리단층) 고신용자는 5% 미만의 저금리, 중·저 신용자는 20% 초과 금리로 대출받는 등 금리구조가 단절화

*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(‘15.9월말): 은행 4.4% / 여전 18.1%, 저축은행 25.0%, 대부 30.2%

② (신용양극화) 총 개인신용대출 규모는 증가(‘12년말, 223조→‘15년말, 258조) 하였으나, 고신용자를 제외한 중·저 신용자 대상 대출은 감소

* 특히 은행권은 고신용자 대출집중 : (1~3등급 대출비중) ‘12년말 69% → ‘15년말 79%

□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등으로 중금리 상품 출시가 증가하는 추세이나, 대출총액 등의 측면에서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

* 일례로, 은행권 상품은 대출한도(5백~1천만원)가 충분치 않고,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편

⇒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이 형성·확산되는 최근의 추세를 보다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차원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

II 중금리 신용대출 미흡 원인

① (공급측면) 금융회사는 대출비용 및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중금리 신용대출을 적극 취급할 동기가 부족

- (은행) 건전성 악화 우려, 평판 리스크 등으로 중신용자 신용대출 취급 유인 부족
- (저축은행) 높은 원가구조*, 구조조정 이후의 보수적 운영 등으로 고객 선별(screening)수단 없이는 금리인하에 소극적

* 연체율(11%수준), 모집 비용 등에서 은행에 비해 대출원가가 높은 편

② (인프라 측면) 신용평가 정보 부족, 평가 시스템 미흡 등에 따라 금융회사가 중신용자의 신용도 판별이 어려운 측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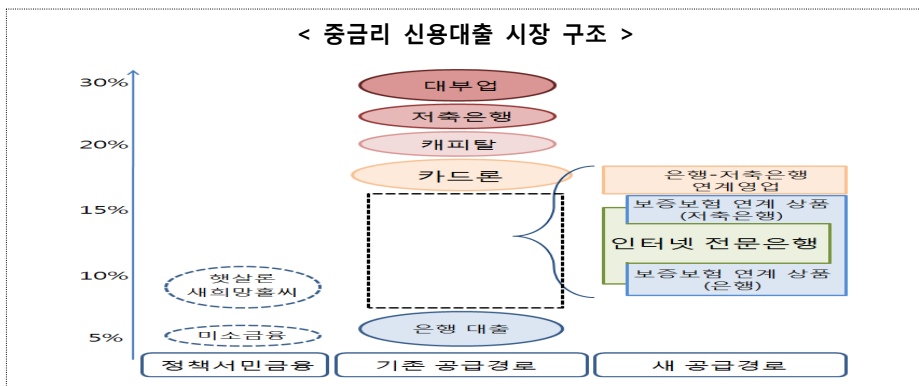
- 신용평가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는 금융회사간 리스크 분담(risk sharing) 방식의 중금리 대출도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

III

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

◇ 시장조성(market building) 차원에서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, 중간 신용자간 선별이 가능하도록 평가 인프라를 조성

1 (공급경로의 다양화) 현재 카드론·캐피탈 등에 그치는 중금리 신용 대출의 공급경로를 다양화하여,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경쟁을 촉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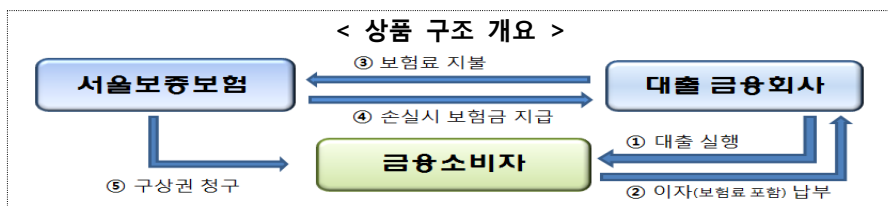
1 (인터넷전문은행) '16년 하반기 본인가 이후 3년간 1.4조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 공급(2개사 추정치)

- 빅데이터(Big Data)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을 통해 혁신적 상품을 공급 → 시장의 촉매제 역할 기대

2 (보증보험 연계 상품) 서울보증보험사가 은행, 저축은행이 공급하는 중금리 대출 상품을 보증

- (기본구조) 은행·저축은행은 중금리 대출시 보증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, 보증보험사는 대출 미회수시 보험금을 지급

* 대출금리와 보험료는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예정



- (공급규모) 우선 1조원 공급(은행·저축은행 각5천억원)을 목표 → 추후 운용성과에 따라 보증보험사·금융회사간 상호 협의하여 확대 검토
- (상품내용) 은행과 저축은행의 고객층·원가·영업망 등 특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대출대상·한도·금리·판매채널 등을 이원화

<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(안) 예시 >

은행	상품구조	저축은행
· 4등급이하 중·저신용자 중심	대출대상	· 좌동. 다만,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 중심 예상
· 보험료를 포함 10% 내외 *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·보험료 차등	금리수준	· 보험료를 포함 15% 내외 * 좌동
· 2천만원 한도 · 60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	대출한도 및 상환조건	· 1천만원 한도 · 좌동
· 대면·비대면 대출 병행	판매채널	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 적극활용 예상(영업망 제약, 비용절감 등 감안)

- (손실분담) 보증보험사가 일정수준*까지는 대출상환을 보장하되, 연체율이 일정수준 초과시 금융회사도 손실을 분담 →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리스크 관리 유인 제고

* (예시) 보증보험사 보험금이 보험료 수익의 150%를 초과하는 경우 → 금융회사가 보증보험사에 추가보험료 지급, 보증보험사는 대출자에 구상권 행사

- (출시시기) '16년 하반기 중 준비된 회사부터 순차적 출시

- 참여 금융회사는 보증보험사와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, 상품구조는 출시 이후에도 탄력적 운용*

* (예시) 매분기별 공급규모/연체율 등을 모니터링하고 대출승인기준 수정·보완

⇒ (기대효과) 금융회사간 리스크 분담방식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초기 중금리 대출 시장 조성 및 노하우 축적

- 상환·연체 등의 데이터 축적에 따른 신용평가 역량 제고와 참여 회사의 새로운 상업적 수익기반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

6 ('은행-저축은행' 연계영업 활성화) 소비자·금융회사의 참여유인 확대

- 연계대출 이용자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하락폭을 완화

* (현재) 평균 1.7등급 하락 → 캐피탈 수준(1.1등급 하락)으로 완화

- 은행의 서민금융평가에 연계대출 실적을 반영

- 은행계 뿐 아니라 비은행계 저축은행도 연계영업 참여 유도

* 현재 저축은행 중앙회는 우리은행과 전략적 업무제휴 추진 예정

2 (신용평가 인프라 확충) 신용정보 집중·공유범위를 확대하고, 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중신용자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

1 (정보제공 강화) 대부업 정보공유 확대 추진* 및 저축은행·대부업간, 저축은행간 중복대출 신청 등이 실시간 파악되도록 시스템 개선

- * 1 CB가 보유한 대부업 이력정보(취급기관명, 대출취급액, 연체금액 등)를 저축은행과 공유(현재는 대출잔액, 연체여부 등 기본정보만 공유)
- 2 신용정보집중기관 대부업 정보를 업권간 공유(저축은행권부터 순차적 추진)

2 (신용평가체계 개선) 개인신용정보 비식별화 지침 마련 등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을 활성화하고, 저축은행이 다양한 여신평가 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여신평가시스템 다양화

3 (제도적 지원) 중금리 신용대출 확대 유도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

- 1 (인센티브 부여)** 중금리 대출실적을 은행 서민금융평가에 반영하고, 저축은행 의무대출비율 산정시 우대 적용
- 2 (비교공시 강화)**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사이트(“금융상품 한눈에”)에 업권별 중금리 대출 상품을 별도 공시
- 3 (저축은행 금리운용 점검)** 신용도별 금리 현황을 업무보고서에 포함·점검(‘15.3월~)하고, 금리 차등화 관련 경영지도기준 신설 검토

IV 추진계획

☐ (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) ‘서울보증보험-은행연합회·저축은행 중앙회’ MOU체결(‘16.2월중) → 참여 금융회사 TF 구성·운영(‘16.2월~) → 준비된 금융회사부터 순차적 출시(‘16.하~)

☐ (기타사항) 상반기 중 방안을 확정하고, 하반기 중 조속히 시행

※ 별첨 :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1부.
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관련 Q&A 1부.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fsc.go.kr>



넓게 듣겠습니다
바르게 알려드립니다